

북한개발소식

11

2019 November

통권 169호

| 이달의 주제 |

선교사의 안전과 케어



월간

북한개발소식

2019 November

CONTENTS

이달의 주제 :

선교사의 안전과 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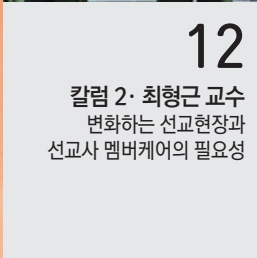
01

권두칼럼
선교현장의 안전과
사역자 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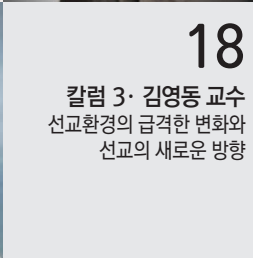
08

칼럼 1· 김정환 선교사
제한 접근지역 선교사의 보안



12

칼럼 2· 최형근 교수
변화하는 선교현장과
선교사 멤버케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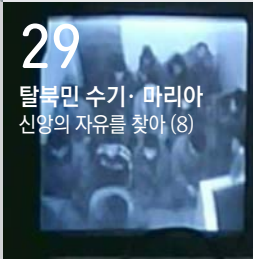
18

칼럼 3· 김영동 교수
선교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선교의 새로운 방향



23

칼럼 4· 허은영 선교사
선교사,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29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8)

34

북한 뉴스



39

북한 기도 제목

선교현장의 안전과 사역자 케어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17년도 사드사태로부터 시작되었던 중국의 한국인 선교사 추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단속 강화 정도가 아닌 중국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 변화가 두드러진다. 중국 등 제 3국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북한 선교의 특성상 중국의 선교사 추방은 단순한 중국 선교의 어려움을 넘어 북한선교환경의 악화를 뜻한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선교사는 항상 사역 간 영적인 도전과 함께 정서적으로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타문화권 지역의 낯선 이방인으로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정서적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다. 특히 현 시대 주요 선교지역은 기독교에 배타적이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북한선교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다른 선교지에 비해 더욱 심한 위협과 압박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선교는 영혼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으로 양육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역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선교 현장 상황의 악화는 선교사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할 뿐 아니라 선교사 개인에게도 영적, 정서적, 물리적 부담을 가중

시킨다. 선교 현장의 상황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적절한 대안 또는 완충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사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추방 등 사역 단절 사태에 대응하여 사역 단절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출구 전략 준비도 필요하다. 박해가 만연하고 선교사를 배척하는 시대에 맞서 선교의 방향도 단순한 파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선교현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선교사역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몇 가지 제안을 나누고자 한다.

선교사의 안전 문제

북한 선교 현장은 본래부터 다양한 위협이 도사리는 선교현장이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두드러졌다. 김동식 목사, 강호빈 목사, 김창환 목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셨고 김정옥 선교사를 비롯하여 7명의 남한 출신 사역자 및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의해



〈중국 공안〉

납치 및 억류당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순교와 희생이 있었다. 현지 사역 동역자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2016년 4월 30일 중국 장백 교회의 담임목사이신 한충렬 목사님께서 순교하시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조선족 사역자들이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거나 다양한 위협을 받아왔다. 북한 당국의 반발과 위협은 선교사가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사역을 펼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 선교환경의 문제는 주로 북한선교가 이루어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를 옥죄는 공안(公安)적 환경과 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타 선교지에 비해 치안 부재나 재해로 인한 위기상황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선교사가 발을 딛을 때부터 따라다니는 공안적 환경은 선교사의 사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선교사 대량 추방 사태 전부터 선교사들을 파악하고 감찰하는 중국 정부의 활동이 익히 알려져왔다.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감찰 활동은 물론이고 한국의 신

학교나 교회 주보까지 꼼꼼하게 수집하여 중국 내 한국인 선교사의 소재를 파악하고 심한 경우 한인교회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되는 등 선교사에 대한 공안적 압박은 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다.¹ 그리고 그 동안 중국이 수집해왔던 정보는 결국 선교사 대량 추방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말았다.

선교 현장의 불안한 안전 문제는 선교사에 게 일종의 딜레마를 안겨준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펼쳐야 더 많은 영혼을 만나고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안적 환경에서 사역이 노출되고 사역 지속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사역의 지속성과 선교 중단 사태 예방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선교의 반 중단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 어느 한 쪽이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보안과 사역의 균형을 찾는 일은 선교사에게

¹ 이필립, (2012), “중국선교사의 위기상황과 대처방안”, 중국을 주계로 12년 9월호 (133호), <http://www.chi-natogod.com/main/z2s_c_v.php?no=1928&ctg_no=133&div=2>(검색일: 19.10.22)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어떻게 보안과 사역의 균형을 찾고 장기적으로 선교를 지속할 수 있을까? 먼저는 선교사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위협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정확한 보안 기준과 안전 수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장 좋은 안전대책은 선교를 방해하는 당국과 기관의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조심한다를 넘어 문제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는 관점에서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당국의 감시와 통제의 메커니즘, 그리고 당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피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중시하며 해외 세력이 중국 내 문제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히 꺼린다. 선교사에 대한 감시와 추방은 기본적으로 중국 당국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해외 종교 세력의 영향력 통제에 방점이 있다. 특히 북한 선교는 특성상 동북 3성, 구체적으로는 조중국경지대를 끼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의도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 인권 운동 같은 특수 사역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또는 정치색이 의심받을 수 있는 활동은 삼가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과 각종 통신수단의 사용이다. 중국은 각종 검열이 당연한 듯이 이루어지는 국가다.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 개인 통신수단과 함께 인터넷 사용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 온라인을 통한 통신 대책의 존도를 가능한 줄이고, 필요시에는 용건만 선



교적 용어 없는 일상적인 언어로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와 후원자들의 도움도 절대적이다. 선교사에게 무리한 연락 요구 등을 삼가고, 선교사가 보내온 선교지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SNS나 교회 홈페이지, 주보 등에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인 조치뿐 아니라 선교사는 항상 자신이 추적당하거나 공안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공안에 의해 갑작스럽게 집을 수색당하거나 심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동료 선교사들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고 연락용 폰을 별도로 만들어 유사시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경 및 신앙 서적 등 단순 종교 자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선교 사역에 관한 내용은 가능한 생산하지 말고 필요시에도 사용 후 바로 폐기하여야 한다. 컴퓨터 안에 파일을 남기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특정 단체나 기관에 속해있더라도 그러한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덧붙여 최대한 실정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복음사역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유사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역 지속성과 선교사 케어

앞서 언급한 공안적인 환경과 선교사에 대한 위협은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뿐 아니라 선교사의 영적, 정신적 상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긴장과 두려움이 연속되는 환경은 선교사들을 쉽게 탈진시키기 때문이다. 영적, 정신적 고갈은 남을 돕기는커녕 자신도 추스를 수 없게 만든다. 안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선교사 케어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의 연구에 의하면 선교사 멤버케어를 잘 받은 선교사는 중도탈락률이 적다고 한다. 특히 한국, 브라질, 나이지리아와 같은 신생 선교사 파송국 선교사들이 서구 선교사들보다 ‘예망가능한’ 중도탈락률이 높다고 한다.² 선교사 파송에는 열과 성을 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선교사에 대한 적절한 케어는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교사 케어는 근본적으로 선교사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선교사의 희생을 무의식 중에 당연시하면서 어려움과 부담을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최형근은 선교사에 대한 희생을 강조하는 잘못된 풍토를 꼬집었다.³ 성도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헌신과 희생적인 삶, 그리고 기적적인 사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가운데 아이러니하

게도 선교사들의 안전과 평안, 보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고귀한 희생과 능력을 갖춘 초인적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가운데 선교사는 영적 책임감을 느끼며 분투하지만, 선교지에서 영적/심리적 압박과 고충을 겪을 때 그 심정을 교회나 파송 기관에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다. 솔직한 나눔이 역으로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역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신체적인 질병은 용납되지만, 심리적인 질병은 영적 문제로 간주되어 깊이 감추어지는 잘못된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형근은 이어 교회가 선교사에게 희생을 강조하는 ‘생존모드’에서 벗어나서 ‘발전, 성장 모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선교는 선교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교사가 그저 자신을 소모하는 식의 사역이 아닌 지체로서 양육받고 개발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도록 하는 유기적인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교사 케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성경적 근거 하에 각기 다른 지체를 서로 돌보는 유기적인 양육 관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내용은 함께한 다른 글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고 이 글에서는 특별히 북한선교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북한선교현장은 불가피하게 선교사 개인의 셀프케어가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효과적인 선교사 멤버 케어를 위해서는

2 이재한, (2018), “선교사 멤버 케어 연구: PCK의 멤버 케어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5집, 306-307.

3 최형근, (2011),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선교와 신학 28집, 95-100.

선교사 개개인이 홀로 모든 영육간의 짐을 감당하기보다는 선교사들이 끈끈한 팀을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양육하는 시스템이 권장된다. 그렇지만 공안적 환경 속에서 선교사들이 자주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은 유사시 대량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점을 알고 있기에 북한선교현장의 사역자들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외로움을 선택하게 되지만 그에 따르는 부담과 어려움이 상당하다. 이러한 선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방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교회나 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에 전적으로 몰두할 수 있도록 기준에 따라 선교사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사역을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게 마련인데, 북한 선교현장은 일반적 기준에서 수정된,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제대로 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선교현장에서 충분한 영적 공급과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

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주기도 일반적인 선교현장보다 짧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파송 전부터 선교사와 교회/파송단체가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셀프케어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사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다. 북한 선교는 외국인의 신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다. 주 선교 현장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인만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현지인 사역자들이다. 그렇지만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의 관계는 매우 보안이 중요하고, 그러다보니 파송 교회에서는 그러한 현지인 사역자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선교의 동역자로서 함께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다. 선교사가



받는 압박을 현지인 사역자도 동일하게 받지만 이들에 대한 케어까지는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역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사역자를 잘 케어하고 돕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안 문제로 교회나 파송단체가 직접 사역자를 돕지는 못하더라도 선교사를 통해 적절한 케어 대책을 세우고 헌팀으로서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갑작스런 사역중단 대처

이렇게 조심하며 사역을 진행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역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교사의 추방은 단순히 선교사 개인의 사역 지속의 문제뿐 아니라 협력했던 현지 사역자 및 사역 대상자들과의 신뢰 문제와도 연관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선교사의 추방 자체만으로 사역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거나 이미 중단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사역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중국의 추방 사태를 기점으로 추방 선교사에 대한 멤버케어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추방당한 선교사의 영적, 정서적 회복과 다음 사역으로의 재배치에 대한 것이다. 후원 선교회와 교단, 교회의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추방선교사들이 급증하면서 추방 선교사를 잘 케어하고 성공적인 재배치까지 이끌 수 있도록 미흡했던 관련 지침과 수칙을 정비하는 분위기이다. 일례로 예장 합동의 추방선교사에 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은 아래와 같다.

첫째, 추방이 확정되면 후원교회에 소식을 전한다(단, 선교사의 의중을 물어서) 이때 공항 영접 및 숙소에 관해 의논한다.

둘째, 1-2주 이내에 총회세계선교부에서 모임을 하고 디브리핑⁴을 한다.

셋째, 애로사항 및 희망사항 청취 및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넷째, 추방 선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후원교회에 6개월-12개월 안식년을 주도록 권한다. 특히 재정중단을 하지 않도록 부탁한다.

다섯째, 휴식과 안정, 건강검진, 상담 심리치료를 거친 후,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준비되도록 한다.

여섯째, 이 기간에 입국 거부(추방 지역)의 사역에 대해 정리한다.

일곱째, 총회는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 후 사역지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⁵

위와 같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추방선교사에 대한 케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북한선교현장에서는 비록 선교사는 추방을 당했더라도 사역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타 선

4 디브리핑(debriefing)이란 사건 발생 이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선교사 멤버 케어에 있어서는 '선교사가 지난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특정 사역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와 관련해 청중이 사려깊은 경청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5 최진호, (2009),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7집, 97-99. 최진호 선교사는 논문에서 2017년 이전에는 위기관리나 멤버케어 매뉴얼이 미흡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처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위기관리와 멤버케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평가하며 위와 같은 매뉴얼에 덧붙여 교단 선교부가 추방선교사에 대한 현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원활한 재배치를 위한 현지선교회와의 긴밀한 공유 및 매뉴얼이 실제적으로 운영, 가동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지와는 다르게 북한 선교현장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복음제시와 구제가 주된 사역이다. 그러다 보니 타 선교지에 비해 선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더라도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타 선교지와는 달리 선교사가 갑작스럽게 추방을 당하면 남아있는 현지 사역자와 연결된 사역 대상자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고, 추방당한 선교사나 후원하는 교회가 현장에 대해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면서 후속조치 없이 열심히 수고했던 사역이 그대로 증발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선교사 추방으로 인한 현장의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선교현장에서는 선교사 추방 과정에서 현지 사역자도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인 선교사와는 다르게 현지 사역자는 지속적으로 당국의 간섭과 심한 감시를 받게 되고 때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렵게 되기도 한다. 외국인 신분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혼들과의 다리가 되어주고 또 직접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성도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역자가 버려지고 방치되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쌓이면 현장 사역자는 선교사에 대한 불신과 쓴뿌리가 생길수 밖에 없다. 추방 선교사와 후원 교회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선교사 추방으로 기존 사역이 이미 끝났다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기존의 선교 자산을 보존하는 가운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며

복음이 한반도에 처음 전파되던 그때부터 근래까지 한국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남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 순교는 웬지 낯설고 어색한 단어들 되었다. 그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함에 대해 감사와 더 큰 헌신으로 보답하기 보다는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최전방에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서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 함께하지 않아서일까 우리는 그 전쟁이 나와 상관없다 여기거나 선교사를 이미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다했다는 듯이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선교는 선교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선교지와 우리가 한 몸, 한 교회임을 명심하고 세속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선교지의 어려움과 선교사의 분투에 함께 동행하는 성숙한 의식이 싹트길 기대해본다. ☺

제한 접근지역 선교사의 보안

김 정 한 선교사 (GMS 총회세계선교회 위기관리 담당)

서론

‘세계화’의 유익은 세계를 ‘지구촌(glocal)’의 시대를 경험하게 했다는 유익과 더불어, 모든 정보가 모든 곳에서 모든 이에게 공개되고 전파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북아 모 국가에서 수천명의 선교사가 대거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단 선교부로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GMS의 경우, 1996년부

터 2019년 9월까지 약 23개 국가에서 190여 unit 선교사가 비자발적 철수를 당했다. GMS 전체 선교사의 숫자가 2560여명으로써 한국 선교사 전체 숫자 27000여명의 9%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동안 한국 선교계에서는 최소 2000여건의 비자발적 철수 사례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비자발적 철수 사건이 대부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할 제한 접근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교회와 한국 선



교계가 선교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도, 언제든지 법률 적용으로 인해 비자발적 철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1. 제한 접근 지역과 선교사 철수

1) 제한 접근 지역의 범위

“외국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지역/국가”를 통칭한다.

전 세계 250개 국가 중 절반 이상인 150개 국가에서 ‘외국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오픈도어에서 매년 발행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의 기준을 적용해서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달리 표현하면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거주 할 수 없거나, 사역 할 수 없는 곳을 뜻한다.

2) 제한 접근 지역 선교사 수

GMS의 경우 약 102개 국가에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약 60개 국가에서 ‘선교사’ 신분이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사역한다. 이는 전체 선교사 수의 70%이상인 약 1700명에 해당한다. 만일 이를 한국 교회 전체로 확산하면 약 17000여명이 보안을 요구로 하는 제한 접근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3) 제한 접근 지역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

GMS의 경우 190여 unit 선교사가 비자발적 철수를 당했는데, 99%가 제한 접근지역에서 발생했다. 즉 선교사의 신분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철수를 당해야 했다’. 즉, 아직 비자발적 철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제한 접근 지역에

2. 제한 접근 지역의 보안

제한 접근 지역의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의 요인은 근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 있다. 그 국가의 법을 바꿀수 없는 선교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선교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선교 보안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소개 한다. 보안의 원칙에는 ‘99%의 보안은 없고, 100% 혹은 0%의 보안만이 존재한다’. 즉 아래에 제시하는 부류 중 일부만 보안을 유지해서는 온전한 보안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1) 선교사

- 제한접근 지역에서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선교지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이력에 관해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유포 가능성이 있는 SNS를 비롯한 통신/기록에서 자신이 가야할 국가(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개인적으로 만나, 비전 나눔, 기도요청은 가능하지만 이것도 off line로 한다)

- 선교지에서 어떤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사역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 인편 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편(물론 100% 안전하지는 않다)을 통해, 한국의 지인에게 기도 편지(사역편지)를 전달한다.

2) 후원교회

- 선교사들의 후원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많은 교회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심지어 실명 및 구체적인 국가와 사역, 현지인의 이름도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 일부 교회는 교회 카페, 카카오 스토리 등 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절대 금물이다. 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을 알고, 기도 해야 하지만, 가능한한 off line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좋다.



3) 선교단체

선교 단체의 본부는 제한접근 지역 선교사에 대한 신앙은 물론 조직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 단체에 속한 구성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집중하기 쉽지만, 백명 이상이 되거나, 수십개의 국가에 산재해 있으면 방심하기 쉽다.

첫째, 본부의 홈페이지, 전산망의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본부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해 보안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감한 내용(인사파일, 구체적인 사역 내용)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셋째, 본부 사역자들은 통신/언행/외부 강의/글 게재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안에 유의한다.

넷째, 각 선교단체는 자신들의 보안뿐 아니라 타 단체의 선교사들과 사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2007년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모 단체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보안을 유지한 채 사역하던 타 단체의 장기 선교사들이 여러 국가에서 대거 추방되었다)

4) 개인

후원자, 가족, 친구, 동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 후원자들은 보안에 취약한 군체중 하나이다. 선교사 파송 초기에는 긴장하여 주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져서 선교사가 파송된 지역이 제한접근지역이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지역인 것도 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제한 접근 지역과 보안 관련 사례

제한 접근지역에서는 크게 국가와의 보안 관리와 적대 세력(테러분자, 극단적인 종교분파)의 보안으로 구분된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안정’과 ‘발전’이다. 그 어떤 정부도 정권자의 입장에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다. 힘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이다.

국가는 정보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주에는 ‘외부 세력’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포함된다. 외부

세력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상적, 종교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에 민감하다.

‘선교사의 선교’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종교’에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세력이다.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이 제한접근지역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적대 세력은 국가에 비해 최첨단 기술과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지는 못하지만 주로 인적 자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은 제한 접근 지역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보안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소개한다

1) A국가에서 사역하던 B선교사는 현지에 도착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지역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서에 가니 수 개월전 모 식당에서 누구와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며, 앞으로 행동에 유의하라고 했다.

2) C 선교사는 D국에서 활동하였는데, 현지 보안 당국에 의해 심문을 받았다. 보안 당국자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과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을 복사/정리하여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3) E 선교사는 F국가에서 사역하던 중,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휴대폰에 있던 사진, 전화번호,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추방 조치를 취했다.

4) G국가에서 사역하던 H선교사는 5년 동안 사역하였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약 10cm두께의 서류가 증거물로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주고받은 것, 컴퓨

터에 보관하고 있던 문서, 사진 등을 제시했다

5) I국가에서 사역하던 J사역자는 종교적 적대 세력으로부터 테러를 당했다. 선교사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극도로 유의하며 사역을 진행했는데, 적대 세력은 사람을 통해 끈질기게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결론

선교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많은 선교사는 외국인에 의한 선교에 대해 부정적이며, 선교사에 대해 적대적이다. 그러나 선교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남은 선교 대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 보안’이다.

선교 보안은 특정 개체만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고, 선교 관련된 모든 개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아직도, 보안 지역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 지금 자신이(독자)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선교 보안’의식이 어떠한지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

변화하는 선교현장과 선교사 멤버케어의 필요성

최 형 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선교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선교사, 파송 기관/후원교회, 선교지/현지교회이다. 만일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정의한다면, 선교의 시작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며 긍휼의 발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 은사적 측면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일하기 원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어 지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온갖 문제들을 드러낸다면,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은 더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기능주의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사람을 세우며 건강하게 돌보고 양육하기보다는 가시적인 성장과 결과에 초점을 두는 “목적전치현상”을 보이곤 한다.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자원은 사람이며 그들의 성장과 전인적 건강은 바른 선교사역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런 교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선교사들은 경쟁적 마인드, 성과위주의 전략,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며, 하나님의 선교와는 동떨어진 자기중심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선교와 생존을 위한 사역으

로 축소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의 후원을 통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단체들의 선교사들에 대한 돌봄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선교사 멤버케어 운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하심이 선교사를 길러내는 모판인 지역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한다.

선교인력에 대한 멤버케어는 “서로 사랑하라”(요 13:14-35)와 “서로 짐을 지라”(갈 6:2)는 성경의 관계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요일 4:10). “서로”라는 용어는 관계를 의미하며, 관계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재된 속성이며, 그로부터 모든 관계들이 흘러나온다. 선교사로의 부르심(calling)과 보내심(sending)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며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즉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목양과 인도하심을 전제하고 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과정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서 선교사들을 세우시며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선교사 멤버케어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선교적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돌봄의 공동체로서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엡 3:16). 양육과 계발 모드를 추구하는 멤버케어는 훈련과 준비, 적응, 양육, 성장, 은사 개발, 공동체적 지원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됨, 나눔, 위로, 연합 등과 같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공유하는 가족(oikos)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은 심리학과 일반 상담학이 상처받은 개인에게 치료적 접근을 통해 ‘독립적 존재’가 되도록 고무하는 것과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세속적 기업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을 개별화하고 상대화시키며 효율적인 존재가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멤버케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organism)라는 성경적이고 교회론적 근거 위에서 각기 다른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는 유기체적 양육 관계를 뜻한다.

선교사를 효과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교사의 희생을 강조하는 ‘생존모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교사의 희생을 강조하는 모델이 초래하는 부정적 양상은 선교를 선교사의 전인적 건강과 발전이 아니라, 선교사가 현지에 구축한 유형적인 건물이나 프로젝트로 인식하게 만들므로 선교사의 소명과 헌신을 약화시키며 선교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따라서 후원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 자신



들도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양육과 계발을 추구하는 ‘발전이나 성장 모드’로의 전환이다. 선교사 멤버케어의 다양한 흐름들(flows)과 연관하여, 멤버케어의 핵심 실천원리 혹은 최상의 모델은 하나님의 돌보심(주님의 케어)과 인간 상호간의 사랑(상호케어와 파송교회와 단체의 케어)과 관심이 있다. 따라서 멤버케어의 신학적 근거는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돌봄이다.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서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실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정점을 이루며, 그 고난은 미래의 소망으로 귀결된다.

멤버케어의 요소들은 예방적(prevention), 현장 개입적(intervention), 위기관리와 대응(crisis management)인 3단계 상황에 적용된다. 첫째, 멤버케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케어이다. 따라서 파송 전에 이루어지는 선교사 선발과 선별, 그리고 선교사 훈련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교인력에 대한 케어를 위한 최적의 기간이다. 또한 선교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개입하기 전에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멤버케어 프로그램(예를 들어, 모바일케어 팀)이 운영되는 것도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여러 리서치 결과들은 멤버케어가 여전히 상처 난 선교사들을 위한 응급서비스에 주로 치중되며, 예방적인 차원의 멤버케어는 매우 더디게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방적 차원의 멤버케어의 목표는 선교인력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위기상황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적, 신체적, 관계적, 감정적 강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개입 차원의 멤버케어는 문제의 징후들을 발견하고 진단하며 그 뿌리들을 찾아내어 문제가 발행한 과정을 돌이켜 보며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입은 주로 강의, 디브리핑과 상담, 처방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 가운데 설문지나 테스트 등을 통해 삶의 방식의 변화를 격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입은 파송 전 훈련 중에도 종종 일어난다. 타문화 선교사 훈련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갈등요소들이 표출되어 개입수준의 케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개 개입은 선교현장에서 직면하는 질병, 갈등, 스트레스, 우울증, 탈진, 추방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식을 의미한다. 선교현장에서의 개입이 현장 선교부 책임자나 동료들 혹은 멤버케어 담당자들

에 의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비밀보장이나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당사자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필요한 디브리핑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무시되면, 만성적인 질병이나 우울증, 혹은 심화된 관계갈등으로 인해 다른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고 선교부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셋째, 위기대응/관리 차원은 선교현장에서 폭력, 납치, 강간, 테러, 죽음, 심각한 질병, 그리고 강제추방과 입국거부 등 삶에 위협을 가하는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사회적 위기로 인해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보다 집중적인 케어(intensive care)이다. 위기에 취약한 집단들은 대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신학적으로 소박한 사람들, 의존적인 사람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 그리고 MK(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들이다. 위기관리와 대응은 대개 파송 전 훈련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위기관리에 대한 집중 디브리핑이 선행되며, 전문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는 위기관리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위기 사건이 일어날 때, 위기관리 팀의 즉각적인 가동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와 그 가족들과 동료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들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위기관리 정책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어서 대정부 채널과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멤버케어의 요소들과 단계들은 파송 전,

선교현장, 재입국, 그리고 은퇴하고 영구적으로 귀국하는 선교인력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폭 넓게 적용된다.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교회내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선교에 적대적인 글로벌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 선교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화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교회 전반에 걸친 대사회적 공신력 약화와 선교사 증가율의 둔화가 초래하는 침체국면에 직면해 있다. 또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요인들은 선교사의 삶과 사역(특히 후원과 돌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주의권, 힌두권, 그리고 이슬람권 국가들이 실시하는 기존 혹은 새로운 종교정책들로 인해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와 입국거부가 심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는 간헐적으로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일어났으나 주요 의제와 정책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글로벌 정세가 변하면서 종족갈등, 종교간 갈등, 인종갈등 등으로 인해 기독교 선교사들의 추방이 가속화되고 2010년대 중반이후 한국교회 선교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교회의 선교가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중국은 2018년 2월 시진핑 정권의 사회주의 종교정책의 핵심인 신종교사무조례를 발표하고 선교사 추방과 교회폐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을 통해 북한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선



교사들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힌두교 근본주의 정책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과 입국거부로 이어져 한국선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선교사들의 비자발적인 철수는 전방개척 선교를 중심으로 복음전도와 교회개척 중심의 사역을 해왔던 선교사역의 위축을 초래한다. 또한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교사역의 어려움과 함께 선교사들은 추방의 충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후원금 모금의 어려움, 삶의 후반부로 진입하는 시기에 새로운 사역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영적, 정신적, 관계적 어려움은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의 잘 드러나지 않는 고통은 선교사 가족에 대한 전문가의 집중적인 케어를 필요로 한다. 추방된 선교사들이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과 의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선교사 멤버케어는 후원교회, 선교단

체, 멤버케어 전문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하여야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비자발적 철수를 한 선교사들은 철수 이후 한 국에 돌아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하나는 다른 선교지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임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사 임보다는 기존 선교지가 다시 개방될 때를 기 다리며 최대한 문화적으로 유사한 새로운 선교 지를 찾아서 나간다. 사임을 하지 못하는(?) 주 요 이유는 익숙지 않은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 재입국하여 극심한 생존모드 가운 데서 사역지를 구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재배치를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인식 때 문일 것이다. 비자발적 철수를 한 선교사들의 사역의 범위는 다문화 사역, 선교본부 사역, 타 문화권 사역 재배치 등으로 구분된다. 비자발 적 철수 선교사들에 대한 케어의 과정과 재배 치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송교회의 케 어는 무엇보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관심과 지 지이다. 철수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은 선교사 가족에 대한 후원교회

의 적극적인 개입은 지속적 후원약속, 주거, 차 량, 자녀교육 등 재입국 적응을 위한 아주 사소 한 것에서부터 전문가의 위기 디브리핑(사역 디브리핑과 개인/가족 디브리핑)과 재배치를 위한 재정 후원과 같은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이다. 선교단체는 파송교회와 멤버케어 단체의 중간에서 행정적인 측면의 총체적 케어를 제공 해야 한다. 선교단체는 우선 철수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영적, 신체적, 심리적인 안정을 취한 후에, 재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역 과 개인 디브리핑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사 역보고와 개인적 이슈들을 다룰 뿐 아니라, 선 교사의 삶의 전환의 관점에서 은사와 경력과 연관된 이슈들이다. 재배치 논의의 단계에서 선교단체는 선교사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재배치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재배치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디브리핑과 회복 그리 고 현장 리서치를 통해 선교지의 요구와 필요 를 파악하고 MK들의 교육환경의 변화와 삶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즉 선교사 멤버케어는 본국에서 이루어지는 재입 국 케어 뿐 아니라 새로운 선교지에서도 지속 되어야 한다. 추방의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감 극복하도록 현지 선교부의 예방적 케어(가족 케어, 사역 컨설팅과 팀 사역)가 필요하다.

철수 선교사의 재배치 국가들은 주로 해외 타 문화권 선교지이겠지만, 선교사의 은사와 경력 그리고 선교사 가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본부사역이나 본국 사역으로의 전환도 가능 할 것이다. 본국 사역을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후원교회의 인식 변화이다. 대개 한국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의 저변에는, 본국사역 선교사들을 이류 내지는 삼류 선교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선교에 대한 관점은 주로 해외 타문화권, 그리고 더 나아가 창의적 접근지역과 미전도 종족 사역, 혹은 전방개척 선교를 최상의 선교로 인정하며,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가장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교사들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선교사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선교의 생태계 전반에 걸친 아노미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각자의 은사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내신다. 이미 한국사회에 270만 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는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타문화권 선교지를 국내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을 위한 단체들과 선교인력들이 증가하는 추세는 철수 선교사들이 새로운 언어습득과 문화적응을 하지 않고도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타문화권 선교현장으로 재배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선교단체들의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교회가 2000년대 들어 서구에서 일어난 멤버케어 운동에 참여하고 국제 선교단체들이나 멤버케어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후원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멤버케어 부서를 두고 발전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전문 멤버케어 센터들이 세워

지며 멤버케어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국교회 선교가 양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정적 양상들을 드러냈다. 즉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풍토로 인한 부작용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선교인력에 대한 총체적 케어였다. 멤버케어와 선교사 훈련의 통합적 접근, 선교사의 생애전반에 걸친 케어, 그리고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등은 2015년에 시작된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 네트워크(Korea Member Care Network, KMCN)의 주요 관심사였고 논의의 주제였다. KMCN은 2015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친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 멤버케어 운동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교회와 선교단체와 전문가들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세 번째 KMCN 포럼은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와 은퇴와 연관된 “전환기의 사역자 멤버케어”라는 주제를 다룬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핵심은 멤버케어가 선교사역의 중추로 인식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한국교회 선교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힘입어 지난 4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올바른 선교가 외형이나 물량보다는 선교인력을 전인적으로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돌보며 건강하게 구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본질적인 원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위 임령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선교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선교의 새로운 방향

김영동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언제나 그렇듯이 선교는 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복음이 진리이기에 그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진리 대적이 상존하기에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중국의 선교사 입국거절과 추방은 선교의 위기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한인교회의 존립 자체도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무작정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기존의 방식대로 선교해야 할 것인가? 입국거절 당한 선교사들에 대한 멤버케어와 새로운 선교지 재배치 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저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기를 염원한다.

입국거절 선교사에 멤버케어

입국거절 선교사에 대한 멤버케어가 교단선교부나 선교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향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인식해야 할 사실은 입국거절이 단순히 몇몇 개인 선교사의 일탈적 행위

나 선교 방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호길은 “최근 하재선 중국 선교사 추방과 전략적 재배치에 관한 소고” (『한국선교KMQ』 vol.18 no. 3, 2019 봄호, 53.)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공감이가는 견해라고 보아 인용한다.

“하재선[하나님이 재배치하는 선교사: 입국거절 선교사]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략적 실수도 아니고, 선교사 개인의 보안 조치의 실수도 아니며,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차원의 일들로부터 진행된 것이다.” “단언하건대 하재선은 모두 흩어질 것이다. ... 그러나 그 흩어짐은 새로운 곳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는 흩어짐은 무의미하다.”

때로는 선교의 위기와 박해와 제한이 교회 선교의 후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에는 결코 퇴보가 없다고 믿는 믿음으로 입국거절로 심각한 심리적, 영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겪는 선교사들을 환대해야 한다. 영웅시할 것까지는 없다하더라도 그동안 긴장된 상황에서 수



고한 선교사와 그 가족을 국내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환대하고 쉼과 안식을 얻고 재배치되도록 시간과 물질과 영적 공급을 해야 한다. 중년이 넘어 은퇴가 가까워진 선교사들에게는 새로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충분히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한 후 새로운 선교지로 재배치 받도록 하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국 선교역사의 교훈

중국이라는 나라의 선교역사는 대단히 특이한 점이 있다. 중국 역사에서 대략 모두 다섯 번의 대대적인 기독교 선교 금지와 선교사 추방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선교 금지는 9세기 당나라 무종(武宗) 때 경교의 포교 금지였고, 두 번째는 14세기 명나라 태조 치하에서 기독교(원나라 이래로 몽골어 야리가온교(也里可溫教)로 불렸음)와 천주교의 선교를 금지했다. 세 번째는 18세기 옹정 통치 시절 천주교 예전논쟁으로 중지되었고, 네 번째는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1세기 현재 시진핑 주

석의 중국종교정책으로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교훈은 비록 정치적인 탄압과 포교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기독교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라면 점과 한 지역의 포교 금지는 결국 다른 지역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성찰하고 깨달아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선교는 교회나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는 인간의 힘이나 교회의 성장이나 재정이 아니라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중에 이루어짐을 인식해야 한다. 탁월한 선교역사학자인 마삼락 박사는 이렇게 교회와 선교가 의지해야 할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적한다. “당 왕조 … 중국 교회 붕괴 원인[은] … 종교적인 박해도, 신학적인 타협도, 또한 기독교가 외국인의 종교여서도 아닌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후원과 보호를 위해 의지해 왔던 제국의 몰락임

이 틀림없을 것이다.”(Samuel Hugh Moffett,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vol I: Beginnings to 1500*, 김인수 옮김, 아시아기독교회사 1권, 495).



교단 선교부/선교단체의 실제적 대응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는 입국 거절되어 본국으로 귀국한 선교사들 및 후원교회와 협의하에 최대한 불필요한 후유증이 없이 새롭게 선교지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와 일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추방 선교사 환대
- 위기관리와 멤버(가족) 케어 실제 운영 가동
- 현지선교회의 행정기구 역할과 환대공동체 조성
- 후원교회, 교단 선교부/선교단체, 현지선교사회와 선교지 재배치와 정착 협력
- 국내 타 문화 선교 활성화
- 신입 선교사 인선, 훈련의 변화

입국 거절 상황과 새로운 선교방향

필자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정과 희생과 헌신

의 강도에 대해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는 열정 못지않게 우정을 강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사역의 효과성 못지않게 관계의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역의 양이나 규모 못지않게 사역의 질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고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됨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했듯이 오늘날 선교도 사역과 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인간으로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 죄인 된 인간과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의인으로 변화시킨 구속사적 사건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선교사가 가부장적이거나 제왕적 선교사로 현지인, 현지교회와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 현지인, 현지교회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눔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참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됨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 전파를 하든지, 교회 건축이나 학교 사역이나 사회봉사 등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선교로 선교를 축소하지 말고 현존(Presence)과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복음전도, 빛과 소금이 되는 성육신적 선교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증거와 봉사와 교회 개척과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

니다. 자칫 선교가 성육신적 우정 선교가 빠진 인간적, 사회적 일로 비춰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하는 말이다.

특히 중국에서 입국거부 당한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이해하고 추방된 선교사들을 돕고 기도해야 할 점이면서, 추방된 선교사들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이 부분은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7 (2019)을 참고한 것이다.)

첫째, 최소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추방 선교사들에게 안식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하라. 가능하다면 안식년을 한 2-3년 정도 제공하여 공부할 기회를 주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기간을 통해 선교사는 미래 선교사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선교사에게 예정하는 후보지 2-3곳 선교지를 현장 답사하게 하고, 그동안 익히고 사용했던 중국어와 타문화 적응능력을 가장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특히 선교사들이 새로운 선교지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를 통해서보다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 추진하도록 배려하라.

셋째,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는 추방된 선교사가 초임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원하라. 오랜 선교사 경력을 갖고 있는 추방된 선교사가 새

로운 지역에 가는 것은 문화충격과 언어는 물론이고 가는 선교지의 선교 시스템과 전통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새로운 선교지로 가는 추방된 선교사는 최대한 겸손하게 입국하고, 그러할 때 기존의 동료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존중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새로운 선교지에서 중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중국 관련 사역을 하거나 북한 및 탈북자 관련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중국어권의 화교교회나 중국 본토에서 온 유학생 및 사업가, 또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사역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후원교회와 선교단체는 새롭게 재배치되어 가는 선교사가 새로운 선교지의 언어학습과 문화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비밀 사역에 익숙했던 선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게 되면 생활양식이나 사역의 방식에 혼선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교 경험을 새로운 선교지에서 동료 선교사들과 나누며 상호 배움, 상호 나눔, 상호 축제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우정 선교를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롭게 문이 열리는 중국어권 선교를 위해, 특별히 해외 중국 이민 사회 복음화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한다. 1995년 중국 정부가 “신이민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중국인의 해외 이민 열기가 불었다. 해외 인력 송출, 국경무역, 유학 등으로 약 3,000만 명이 넘는

해외 이민이 이루어졌고, 특히 아프리카는 중국인의 신흥 이민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농촌 유희 노동력 문제 해소와 자원 확보 및 미래 시장 선점 등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전략적 투자를 해왔다.” 아프리카에 현재 1만여 개가 넘는 중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아프리카 총 산업 생산의 12%를 차지한다고 한다.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해외 중국 이민 사회는 중국어권 선교의 새로운 장이다. 해외 중국 이민 사회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선교사)와 중국 교회(사역자), 그리고 현지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우정 선교를 개발할 수 있다.

나오는 말

역사가 보여주듯이 선교는 끝난 것처럼 보어도 끝나지 않았다. 선교의 문이 닫히면 다른 선교의 문이 열리고, 닫힌 것처럼 보이는 중국에도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의 선교는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임을 믿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증인된 사명을 다해야 한다. 다만 선교사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모두가 협력하는 선교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사역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나치게 따지며 선교의 성공으로 치부하는 세속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얼마나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여주는지를 가늠하는 자기 성찰을 하는 가운데 현지인, 현지교회와 복음 안에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우정 선교를 실천해야 한다. 우

정 선교는 하나님과의 우정, 선교사간의 우정, 현지인과의 우정, 세상과의 우정을 실천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듣기보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선교지 미신자들은 약하게 보이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리 강한지, 아무 가진 것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하게 사는지에 의문을 가진다. 그러한 질문에 삶으로 응답하는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참된 우정 선교를 위해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리처드 엑슬리(Richard Exley)의 시를 인용함으로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

친정한 친구란,

그대가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

그것을 듣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그대가 고군분투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그대가 실수를 범할 때 정중하면서도

사랑스럽게 그대를 만져준다.

그리고 그대의 실패를 용납해준다.

진정한 친구는

그대가 성장하도록 자극을 주며,

그대의 잠재력을 극도로 키워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점은,

그러한 사람은 그대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축하해 준다는 사실이다.

선교사,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허은영 선교사 (바울선교회 멤버케어 팀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34-35)

멤버케어를 시작하며

얼마 전, 같은 아프리카 대륙을 품고 꿈을 꾸던 동료 선교사 한 분의 장례를 치렀다. 잃어버리기엔 너무 소중한 동료 이었다. 아빠를 또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고 미처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슬퍼하는 유가족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우린 모두 같이 울었다.

더듬어 보면 선교사들 중 아내선교사나, 남편선교사를 토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소식들이 선교지에서 자주 들려온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으로 달려 나간 선교사와 가족들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당하는 위기들을 어떻게 함께 해야 할까? 아니 이보다 먼저 많은 선교사들이 영적, 육적, 정서적 갈등에서 오는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고, 또 누가 이들을 돌봐야 하는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잘 생활하며 사역하

도록 돕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선교사 멤버케어’라고 말한다. 한국 선교사 숫자를 1979년 79명으로 처음 조사된 이래(Dr.Marlin L.Nelson) 2017년 말에 27,436(KWMA통계자료)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선교전략, 리더쉽, 상황화, 자신학화등 여러 주제들을 연구 발전시켰고, 또한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주제 역시 꾸준히 강조되고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선교사들이 느낄 정도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자평이다.

1. 멤버케어의 중요성

선교사는 목숨을 내놓고 선교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투요원들이다. 영적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울 때,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 사단의 공격으로 선교사는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도 있다. 이들이 다시 회복해서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돕는 것이 멤버케어다.

켈리 오도넬은 그의 저서에서 멤버케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교사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선교단체들, 교회들, 선교사를 돕는 기관들이 하는 지속적인 투자이다. 멤버케어의 대상은 국내외 선교사들, 자녀들, 가족들을 포함한 선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며 허입에서 은퇴까지 선교사의 전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켈리 오도넬-』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전략적인 사람들이다.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기 위하여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과 사랑을 동반한다. 그뿐인가 선교단체는 이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일정 기간 훈련으로 준비시켜 파송하게 된다.

그런데 파송만 하고 그들이 현장에서 당면할 어려운 현실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이 부족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는 청지기적 사명을 교회와 단체가 감당하지 못한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원 낭비인 것이다.

멤버케어는 한 선교사의 타문화 적응, 언어 훈련, 사역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 멤버케어는 선교사가 숫자적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아니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선교사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며 미전도 종족을 위해 준비된 축복의 문을 여

는 열쇠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2. 왜? 선교사를 도와야 할까?

귀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관을 운영하며 제공하는 한 사역자의 고백이 잊히지 않는다. 선교사를 섬긴다는 기쁨으로 개인 집을 선교관으로 제공하는데 시작 할 때와는 달리 퇴실 후에 실망과 불편한 마음이 남는다는 것이다. 선교사님이 사용하신 선교관의 기물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등등 전혀 뒷정리도 안하고 퇴실을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분은 [선교사님들은 모두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정리 했다고 한다. 들으면서 내심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분이 선교사를 이해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맞다. 우리 모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정서적 치료가 필요하고 사랑의 충전이 필요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아파하는 환자들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다.

3. 여성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선교지에는 다양한 선교사들이 존재한다.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 선교사, 부인선교사, 또한 결혼하지 않은 싱글선교사, 그리고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다. 이들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토탈 케어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맞춤케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그중에 특별히 여성선교사들과 자녀(MK)들의 케어를 고민해 본다.



〈때로는 우리의 선교사에 대한 관점이 선입견에 좌우되기도 한다.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교사는 000 이다’ 질문을 성도들에게 했더니 ‘순교자, 헌신자, 믿음의 거인들, 선구자, 작은예수 등등’ 어마어마한 대답을 한다. 똑같은 질문을 부인선교사들에게 던졌다. ‘나그네, 이방인, 전달자, 외로운 자, 연약한자 등등’ 이 두 그룹 사이에 선교사를 보는 시각의 큰 차이가 느껴졌다. 선입견이다. 편견과 선입견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지 못하게 오해를 만들기 마련이다. 오해의 법칙은 $5-3=2$ 즉 오해의 감정을 상대방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또한 이해의 법칙이 있는데 $2+2=4$ 즉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우리 안에도 선교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의 법칙을 사용해 보자.

1) 선교사는 영적 슈퍼맨이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신앙 위인들 즉 영적 슈퍼스타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단함을

부러워하고 그 순교를 각오한 정신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다만 주님의 심장을 알고 “저요!”하고 먼저 손들고 나간 사람들이다. 한국성도들의 기대치 때문에 선교사는 스스로를 포장하게 된다. 특별히 체면문화인 한국사회에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실패와 패배감과 우울감을 오픈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니다. 한 전문단체에서 2016년에 설문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위기감(질병등)이 들었을 때 후원교회에게 기도요청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60-70퍼센트의 선교사들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지만 선교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교사의 삶에 대한 성찰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해하고 이해하고, 두 번이면 사랑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2) 선교지에 뼈를 묻는다?

새로운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훈련을 하고 파송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다. 하지만 이미 헌신되어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들을 잘 돌보고 살려내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체크는 병원에서 하지만 병원까지 갈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이 어떤지도 수시로 점검하고 물어봐주고 살펴야 한다. 선교사 스스로가 방치 되었다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도록, 자라나는 자녀교육과 비용이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는 것은 선교사의 헌신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들을 살려야 하

는 사명이 있다. 성경은 서로서로 도우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죽는 것이 유익이라면 서로 도울 것이 무엇일까? 서로에게 서로가 되어야 한다.

3)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디브리핑)

한국에 카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한다. 물론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부인선교사들에게도 이런 카페 케어 팀이 필요하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가장 잘하는 한국어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꼭 전문 상담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선교지 사람들이나 선교사역을 나누는 것보다. 여자로서 싱글로써, 엄마로써 아내로써 타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봐 주면 좋겠다. ‘사역지에 여성에 대한 편견은 어떤지? 선교사님은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떤 상태로, 어떤 즐거움과 두려움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나누는 것을 전문용어로 [디브리핑]이라고 한다.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다. 다만 마음 터놓고 나누다 보면 스스로 치유되고 지난시간들이 정리되면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찾게 된다.

4) 여성선교사의 가장 어려움은 무엇일까?

외로워 보았는가? 필자는 칼라하리 반사막이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경험이 있다. 문득문득 ‘난 잊혀진 선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사막한가운데 나 혼자 서있구

나 하며 슬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특별히 타문화 충격은 부부사별의 4배 정도라고 한다. 비록 많은 선교지가 자유로운 연락에 제약이 있지만, 가능한 곳이라면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권에서 살고 있는 여성 선교사를 위해 이 계절의 한국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카톡으로 보내면 어떨까? 기도하다가 보고 싶어서 연락한다고 짧은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면 어떨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가사가 선교사에게는 새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5) 관계를 잘하도록 관계를 맺어라.

한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선교현장에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의 1위가 동료와의 관계, 2위가 부부관계 라고 한다. 또한 이것이 중도 탈퇴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예방이 필요하다.

싱글선교사가 어떻게 부부선교사와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부인선교사는 부부관계를 잘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료들과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가 있다면 어떨까? 든든한 지지그룹이 한국교회 소그룹이 되어 준다면 선교사 중도 탈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MK(선교사 자녀)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프리카인이겠는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

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MK를 돌보고 키우는 일에는 한 마을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필요할 것이다.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1) MK를 위한 교육과 케어 전문 사역자들을 파송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선교 역사를 보면 MK 교육은 많은 부분을 서양 교육 시스템을 의존하여 큰 은혜와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각 나라의 학교들이 교사지원 및 재정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우리도 MK들을 위한 전문사역자 파송에 힘을 쏟아야 한다.

2) MK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MK가 부모의 대를 이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열매이다. 이미 현장에서 여러 문화 경험과 몇 개의 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 MK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훈련과 파송이 준비되어야 한다.

3) MK 위기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교지에서 당면하는 위급상황뿐 아니라 재입국하여 군대 혹은 사회에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MK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상담, 의료, 법 등등 개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함께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4) 파송교회는 MK 돌봄을 위한 전담(사역위원회)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선교사 가정의 정서적, 교육적 필요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예: 자녀교육 상황, 생일 챙기기, 위로와 쉼을 위한 마련과 소포 보내기 등)

5) 파송교회는 MK의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한국에 MK 홀로 재입국 시 MK를 교회가 케어 해야 한다. 먼저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고 한국적응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준비해야 한다.

7) 교회와 단체는 주기적으로 MK 부모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 제자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각 가정의 건강해야 건강한 선교지 문화가 창출될 것이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찬양집회 도중 선교사 자녀 수련회 진행교사가 선교사자녀를 껴안고 기도하고 있다. (출처:기독교신문)〉

8) 연령에 따른 자녀교육비를 생활비와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

9) 단체들은 MK 전문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MK 특성상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역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속적인 사랑과 케어로 돌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10) 성인 MK 자원을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들이 경험한 다른 문화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들이나 또래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치면서

‘미래’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한국선교의 미래 혹은 MK 사역의 미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다.

MK는 준비된 선교자원이며 선교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라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기대에 부응코자 전천후 선교사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선교사들이 아파하고 있다. 홀로 타문화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고 때 늦은 후회 속에 눈물 흘리는 선교사들에게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부모 선교사들이 서툰 교육방법이 학교만 의존하여 자녀를 교육해야 했고 그사이에 자녀들을 하나 둘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야 했다. 선택할 수 없었던 교육옵션

들이 세상에서는 유능한 자녀들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도리어 제자 화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대를 잇는 제자화를 위해 어떻게 부모선교사들을 도와야 할 것인가는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의 과제이다.

MK 케어가 우리의 선교 현실상 너무 늦게 깨우쳐지고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파송 중심의 과거에서 전인격적인 케어를 중점을 두고 건강한 선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선교사 파송 전부터 가정의 돌봄을 계획하고 선교사와 함께 출발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한국 선교가 많은 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평가보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고 행복하다는 평가를 기대한다. 한국교회들과 파송단체들이 연합하여 허입부터 은퇴이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제공되는 선교사 케어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

참고자료

- 1) David C. Pollock & Ruth E. Van Reken. Third Culture Kids 2008
- 2) 문상철, 한국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적 필요. 한국선교연구원 2013
- 3) 문상철외, 한국선교연구원. 한국선교사 멤버케어 개선방안 2015.
- 4) 켈리 오도넬,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관점과 실천 2004.
- 5) 로라 매 가드너, 선교사 멤버케어 핸드북 2016.

신앙의 자유를 찾아 (8)

●
마리아

예심을 위해 구류장으로 이동할 줄 알았지만, 당시에 보안서(남한의 경찰서에 해당) 소속의 모든 구류장은 죄인들이 꼭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그 근처에 세워진 농건대(농촌건설대) 회사 폐건물로 이동되어 약 두 달간 머물렀다.

이곳 상황도 어느 수감시설보다 열악하면 열악했지 더 나은 것이 없었다. 농건대는 남자와 여자 칸으로 나누었는데 한 방에 대략 50명씩은 살았다. 마땅한 화장실 없이 방구석에 아주 큰 통을 놓고 볼일을 보게 했다. 매일같이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렸다. 가을이라 그런지 날씨가 금방 쌀쌀해졌고 모두 긴 옷차림으로 웅기종기 모여 앉았으나 찬 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방 뒤쪽에 커다랗고 둥그런 연통이 방안을 가로질러 지나갔는데, 그 연통이 그나마 따뜻했다. 오래 있던 죄수들은 점점 뒤로 밀려나 그 연통과 가까운, 덜 추운 곳에 앉았고 금방 온 신입들은 연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감방 맨 앞에 앉도록 했다. 식사 배급으로는 불린 국수를 주었다. 옥수수 국수 면발을 몇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불리고 또 불렸던 것이라 한 번 훌쩍 먹고 소변을 보고 나면 도로 배고팠다.

농건대 생활은 일반 교도소와 거의 흡사했다. 보안서 관할의 경찰관들이 죄수들을 다루었는데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괴롭혔다. 자기들 비위에 맞지 않으면 마당에 있는 통나무 한 무더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시켰다.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했다. 어떨 때는 노래도 시키고 춤도 시켰는데, 누가 잘했나 그 순위를 가리는 것은 순전히 간수들 마음이었다. 각종 경기를 시켜서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벌칙으로 간이 변소에 있는 똥을 손으로 쥐게 했다. 다행히 워낙 노래에 취미가 있던 나는 장기자랑을 시킬 때마다 일부러 혁명적인 노래를 골라 불렀다. 직전 파출소에 있을 때 노래를 하나 배워온 것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은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떠오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꼴찌를 하여 나와 어떤 여자 둘이서 밖에 나가 똥을 손으로 쥐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가보니 똥이 모두 얼어있었다. 도저히 만지지는 못하겠기에 형사에게 빌었다. “제발 선생님을 만족시키도록 웃기게 할 자신이 있으니 한 번만 살려주시라요.” 위에서 우리를 뒷짐 지고 내려보더니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우리를 풀어주었다. 들어와서 광녀처럼 정신없이 춤을 추고 노래했던 것이 기억난다. 오로지 간부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상황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열정과 담대함

을 주신 것 같다. 어떤 날은 아침 댓바람부터 마당에 죄수들을 일렬로 세워서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 반대편 펌프가 있는 곳까지 경주해서 3등 안에 들어야 세수를 할 수 있었다. 나는 2등을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당에서 흙길을 청소할 때 나는 다른 두 죄수와 함께 세수를 했다. 얼음 같은 찬물로 세수를 했는데 참 그게 행복하고 감사했다.

하루는 두부콩 농장 일에 모든 죄수가 동원되었다. 나는 살면서 크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요령이 원체 없었지만 그곳에서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부들이 경주를 시켰는데, ‘요이, 땡!’하는 신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시작점부터 목적지까지 단을 베었다. 나는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질주하는 동시에 낮으로 내 앞의 단들을 서걱서걱 베었고, 결국 가장 잘하는 사람을 제치고 1등을 했다! 상으로 평평이 가루를 한 덩이 얻어서 그날 저녁 떡을 지어먹었다. 꿀 같은 별식이었다.

하루는 간부가 전체 앞에서 나를 부르더니 식모로 임명했다. 아무래도 일전에 집결소에서 반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문서에 남아있었고 평소에도 열심히 활동했던 것이 간부들 눈에 띄는 것 같았다. 식모의 주된 역할은 요리를 담당하는 것인데, 일반 죄수보다는 감시가 덜 했다. 일반적으로는 일에 동원되지 않는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부동자세로 앉아있어야 하지만 나는 그런 엄한 감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다. 요리를 하면서는 참 서글썸했는데, 간부들 요리는 신경 써서 구색을 갖추었지만, 죄수들의 요리는 너무나 간단했기 때문이다. 그저 라면을 끓이듯이 물에 면발을 넣고 한두 시간 푹 삶았다가 때가 되면 100그램

씩 나누어주는 것이 다였다.

이제서야 드는 생각은 도망갈 수 있었던 기회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번은 외부에 있는 큰 배추 농장에 죄수들을 모조리 끌고 갔었다. 그곳은 보안서에서 김장 배추를 재배하는 곳이었다. 죄수들이 배추를 모두 수확하면 트럭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시 소속 경찰관의 집에 가서 할당량씩 배급을 해주는 식이었다. 낮 동안 열심히 배추를 재배하고 나서 나머지 죄수들은 감방으로 돌아가고, 나와 다른 한 여자 죄수만 트럭에 남았다. 집집마다 배추를 배달하고 나니 어느덧 깜깜한 밤이 되었고, 간부들은 “너네 차에서 좀 있으라.”라는 말을 남기고 모두 어디론가 한잔하러 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꼼짝없이 기다렸다. 기회는 있었는데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다.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바로 조선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사상으로 미혹시킨 김씨 일가는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이 아닐까 싶다.

농건대 생활에 적응했을 무렵 구류장에 자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며칠 후 나와 몇 명의 죄수들은 그곳으로 이송되었다. 예심 구류장은 역시나 그동안 있었던 농건대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실제로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었다. 늦가을쯤 이곳에 도착해 녀 달을 지냈으니 한겨울을 다 보낸 셈인데, 그때 겪었던 추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오들오들 떨린다. 영하 20~30도의 날씨에 햇볕도 없이 지냈다. 어떤 방에는 화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감방을 관리하는 계호원들만을 위한 난방 시설이었다. 죄수들은 아주 작은 방에 9명 정도가 지냈고 장소가 너무 비좁은 나머지 누울 때는 머리와 발을 서로 엇갈려서 누웠으며 천장을 못

보고 옆으로 새우잠을 잤다. 녀 달 동안 왼쪽 팔을 바닥에 대고 잤더니 나중에는 왼쪽 팔에 마비가 왔다. 나무판 바닥은 또 어찌나 시린지 바닥에 얇은 누더기 담요를 깔고 두꺼운 솜 점퍼를 입었는데도 찬 기운이 올라왔다. 여성들은 항상 동상으로 인한 발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나는 집에서 가져온 버선을 두툼하게 해서 발에 신었는데도 추위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나는 발동상은 면했으나 귀가 자주 가려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귀는 이미 색깔을 잃어버리고 새까맣게 되었다. 너무 가려워서 귀를 긁으면 귀가 손바닥처럼 커다랗게 부어올랐다. 너무 아파서 화도 내고 짜증을 부리면서도 하염없이 벅벅 굼었던 것이 생각난다. 9명의 죄수가 하나같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붙어서 사는 와중에 변소는 감방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온종일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예전에 겪었던 구류장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운동을 할 시간을 주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부동자세를 취했다.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간수가 와서 커다란 열쇠 문치로 살 없는 손등을 내리쳤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등이 아찔하게 아프다.



〈SBS가 입수한 구류장 촬영 동영상의 CCTV 감시화면 장면 (2011.02.12 SBS 8시 뉴스 “몸의 온 구멍에서 피가” 인권 실종된 북한 구류장)〉

이곳 구류장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예심이 시작되었다. 예심이 끝나면 재판이 있고 이후에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나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너무 절망했다. 그때부터 주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나는 매일같이 예심으로 불려 나가서 반복적으로 같은 글을 쓰고 또 썼다. 예심은 정말 괴롭힘의 나날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당했다.

배식은 감방 철조망 밑의 작은 개구멍으로 들어왔다. 시라지와 옥수수 조금, 두부콩 밥, 소금 국으로 허기를 달랬지만 너무 배고팠다. 하루는 남편이 면회를 왔는데 그이보다 그이가 가져온 음식에 더 눈과 손이 가는 나 자신을 보며 기가 찼다. 그만큼 감방 생활은 열악했다. 면회를 마치고 감옥 안으로 들어올 때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복귀 전에는 항상 몸 검사를 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받아온 옥수수엿을 조금씩 떼다가 몸에 붙이고 들어와서 배고플 때마다 떼어먹었다. 먹다가 걸리면 호되게 매를 맞았다.

어느 날은 예심에 불려가 글을 쓰고 있는데 담당 예심원이 나보고 아마 13년형을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억장이 무너졌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내가 중국에서 남편과 일을 벌였던 것이 걸린 것이 아니냐고, 발뺌하지 말라고 혼이 났다. 알고 보니 내가 중국에 있을 적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아직은 북에 있던 남편에게 얼른 중국으로 오라고, 못 오겠으면 당신이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 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요청을 듣고 실제로 지인을 보내려던 것이 이번에 발각되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이 보냈다는 그 사람은 보지도 못했다. 아마 중간에서 브로커들이 빼돌린 모양이었다. 어찌 됐든 남편 이름으로 법적 처리된 서류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번에 나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모양이었다.

그 말을 듣고 감방으로 들어와서 하염없이 울었다. 세상이 이제는 무너진 느낌이었고, 내가 붙들고 있던 가장 마지막 희망마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목마르고 절망했다. 그때부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사실 예심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아주 컸다. “죽은 자도 살려 내는 하나님이라면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나를 이렇게 복송시키고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갔고 절박함에 기도가 나왔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다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기 시작했다. 아침에 5분간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 찬양 울동을 추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중국에서 성탄절 날 울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속으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며 기도했다. 옆에서 죄수들이 그게 무어냐고 물어보면 중국에서 요가를 배워왔다고 그랬다.

기도 응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날 담당 변호사를 만났다. 북한에도 죄수들을 위한 변호사가 있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 그 사람은 죄수 몇 명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가 편이 되어줄 변호사라고 했다. 북한에도 재판 과정이 있다. 물론 남한행을 기도하다가 잡힌 사람이나 기독교인, 간첩 등 정치범에게는 해당 없는 사항이다. 이런 부류의 죄수는 구류장까지도 오지 않고 보위부 내에서 조사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 이 중 진짜 죄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명 과정을 거쳐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치범인 것이 확

인되면 그때는 끝장이다. 나는 다행히도 정치범은 아니어서 재판을 받았다.

생전 처음 보는 변호사의 존재가 생소했지만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할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우리 가문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문인가를 생각해내었다. 아버지는 상이용사였고 오빠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니 이렇게 우리 가문은 조국 보위의 길을 걸었으며, 나 또한 과거에는 반역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부터 돌이키겠다는 말을 변호사에게 들려주었다. 변호사와 대화를 하면서 새삼 내 처지가 참 개탄스러웠다. 그저 시골 아낙네였던 내가 나라의 형편이 좋지 못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 것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장기간 복역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원망스러웠다.

다음 날 드디어 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정에 들어서서는 순간 나는 위압감에 못 이겨 찌그러진 강통처럼 위축되었다. 공기부터가 달랐다. 국장과 인공기가 정면에 커다랗게 달려있었다. 나는 족쇄가 채워진 채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위엄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검찰과 재판장, 피고 등의 단어를 술술 꺼냈다. 그는 나를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이 자는 이렇게 했다. 이 자는 저렇게 했다” 이렇게 호칭했는데, 그 말을 듣는 족족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 자는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나라를 반역하고 중국에 불법 월경을 하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량을 조정했고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변호할 게 없느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나의 아버지와 오라비가 나라에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열거했다.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피고는 더 할 소리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여기서 말을 잘해



〈2015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형 선고 당시 북한 최고재판소 법정 장면 (우리민족끼리TV)〉

야 한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가다듬어 겨우 입을 열었다. “두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본보기가 돼야 하고 아이들에게 나라에 떳떳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엄마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나라 앞에 부끄럽고 자식들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은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비록 너희 아버지와 오라비는 조국을 위하여 큰 공을 세웠지만 너는 나라를 배반한 죄로 법조 ***조에 따라 비법월경 죄로 노동교화형 4년 형에 처한다.”

판결을 듣고 나는 펄펄 울었다. 맨 처음 구류장을 지나 집결소, 파출소, 그리고 농건대에 머물면서까지 나는 교화소에는 가지 않으려 무진장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다. 이후 열흘 동안은 상소기간이었다. 재판 이후 판결에 이의가 있는 죄수들은 상소하도록 되어있었다. 간수들은 상소 절차를 밟을 죄수들에게 용지를 나누어주었다. 일반 범죄자나 경제사범 중 일부는 상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두려워서 상소를 하지 못했다. 특히 나와 같은 탈북자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소를 할 자격 자체가 없었다.

재판 이후 나는 어디론가 불려갔다. 내 앞에는 소위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판결 이후부터는

석방 전까지 공민증을 박탈당하고 물건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호원들이 흔히 교화소로 죄수들을 데리고 갈 때 “돼지 수매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제 나는 이 나라에서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혹여 내가 죽더라도 여기 이렇게 버리고 가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돌이켜보건대 나는 이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공포스럽다. 출구 없는 절망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 이 글을 쓰는 요즈음도 다시금 이때로 돌아가 악몽을 꾸곤 한다. 꿈만 꾸어도 허가 마비될 정도로 끔찍하다.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게 되었다. 그렇지만 도저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마음이 심란했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많은 성도 앞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말씀을 의지하여 무사히 간증을 나눌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악몽과 아픈 기억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때때로 그때의 기억이 나의 가슴을 찌르는 듯 조여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북, SLBM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 규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형-3호를 북미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0월 2일 오전 7시 11분경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쏘아 올려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동쪽으로 약 450킬로미터가량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으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킬로미터로 분석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다음날인 10월 3일 이번 미사일이 지난 2017년 그 존재를 공개한 ‘북극성-3형’을 실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지구를 굽어본 우리의 북극성’ 제목의 정론에서 “북극성은 단순한 전략무기의 과시

이기 전에 전 세계에 보내는 조선 인민의 위력한 성명,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는 횡포한 반동의 무리들에게 보내는 엄숙한 성명”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긴장 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3년여 만이다. SLBM은 공격 목표에 근접해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 8월 동해상에서 SLBM인 ‘북극성-1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이후 ‘북극성-1형’을 지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을 지난 2017년 두 차례 발사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10월 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10월 8일 안보리 회의 직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6개국의 유엔대사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첫 북미 실무 회담 결렬



〈스톡홀름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협상 결렬 성명을 발표하는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미국과 북한이 10월 5일 스톡홀름 외곽의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실무협상을 열었으나 진전 없이 결렬되었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협상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실제적' 조치를 비핵화 논의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며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보다 사실상 더욱 강경한 협상 태도를 보였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

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2주 뒤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번 협상은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북한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양측 대표를 맡았다. 이번 실무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린 공식 실무협상이었다.

+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들어내라”… 전문가들 "대남 압박과 실망감 표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고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압박과 함께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0월 23일 김 위원장이 고성향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 옥류관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남측이 세운 이 시설들에 만족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됐으며 자연경관에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 간 방치됐다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대남 의존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하며,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산이 마치 남북관계의 상징처럼 되어있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돼있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남측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남측에 줄곧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 왔다. 남북한은 또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주요 남북경협 사업 재개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반대급부 '카드'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남북 경협을 비핵화 진전 지렛대로 삼으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꾀하려는 정부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남북경협에 거부감을 드러낸 만큼 이런 정부의 구상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도 했는데 이는 남측과의 협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남측이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대남 압박과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 미 법원, '와이즈 어네스트' 최종 몰수 판결... 북한 자산 공식 몰수 첫 사례



〈미국 정부가 몰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 북한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공방 없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데,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공식 몰수된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몰수를 최종 승인했다. 최종 판결문에는 피고의 물품, 즉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를 처리하고, 이번 판결문 사본을 미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이 담겼다.

아울러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웬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웬비어 씨 부부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미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도 최종 판결문에 포함됐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선박

으로, 이후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다. 이어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를 승인받아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다. 현재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지만, 조만간 웬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북한에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들이 매각된 북한 자산으로 배상금을 일부 충당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이나 송이무역회사 등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결석판결' 형식으로 내려지게 되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결석판결을 통한 수 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 왔다.

+ 카타르 월드컵 예선 평양 원정 '무중계·무관중'... 각종 잡음도 잇달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 경기를 위해 평양을 찾은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월 15일 오후 5시 반부터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북한과 0대0으로 비겼다. 지난 1990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통일 축구경기 이후 29년 만의 평양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날 경기는 수만 명의 북한 응원단이 들어올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남북 양측 응원단은 물론 외신 기자도 없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 경기 시작 30분을 앞두고도 "경기장에 아무도 없다"는 소식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전해졌다. 결국 평양 원정에 나선 한국 축구 대표팀이 북한과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남북 간 월드컵 예선전은 북한 측의 불허로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경

기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전자우편을 통해 문자로 경기 소식이 전달됐다. 후에 DVD를 통해 녹화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질 문제로 중계가 취소되었다. 북측은 남측 대표팀의 방북 체류 중에도 간단한 통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니 인판티노(Gianni Infantino)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도 전세기로 평양을 방문해 남북 대표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였으나 경기가 예상외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 당국의 경기 생중계 불허 및 취재단 접근 차단 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남측과의 접촉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당분간 남북관계 소강상태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기도 제목

1.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 현장의 상황이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추방과 사역 중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은 큰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도 갑작스러운 사역의 중단과 새로운 선교지로의 재배치라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파송받은 몇몇 사명자 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전에 파송에만 집중하고 선교사들의 고충에 무감각했다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선교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해져만 가는 단속과 통제 속에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만큼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북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진보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고, 박해 상황의 개선과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과 동역하며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의 사역자들의 안전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화와 협상이 계속 시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SLBM도발과 금강산 관광지 철거 발언, 북미 실무 협상 결렬 등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금 교착상태로 빠져가는 한반도 정세를 보며 외교나 정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가 진척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가운데 주님만이 영광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인권 탄압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심각한 감시와 통제, 특히 심각한 기독교 박해는 하루 속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해로 순교한 이들, 또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수 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성도들 및 그 후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감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절실한 영육간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 교회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통일의 마중물이라 외쳤지만 정작 탈북민 개개인에게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통일과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의 영혼들을 섬기고 통일을 앞장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 잘 제작되고 송출되도록 기도합니다. 매일 밤 깨끗한 음질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11월 1일



2020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20년 4월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6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